

일반쓰레기 취급하는 「放射性폐기물」

病院·研究所등서 태우거나 땅에 묻어
法上 安全시설處理場서 専門業者가 永久폐기해야...

환경 파괴등 위험 많아

安眠島 핵폐기물처리장 건설계획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각대학과 연구소·병원등에서 사용이 크게 늘어나는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의 수거·처리 안전에 대한 고려없이 아무렇게나 이루어져 또다른 환경파괴위험요인이 되고있다.

이들 방사성원소폐기물은 原電등 핵폐기물에 비해 위험도가 훨씬 낮으나 계속 축적될 경우 생태계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어 원자력법상 수거·보관·처리에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 사용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일반쓰레기처럼 다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태=현재 대학의 이공계연구실이나 병원 방사선과에서 연구·진단·치료목적으로 쓰이는 방사성동위원소는 탄소14, 요드125, 세슘137등이며 사용기관은 88년 5백94곳에서 지난해엔 6백33곳으로 늘어났고 매년 40~50곳씩 늘는 추세다.

원자력법에 따르면 이들 방사성폐기물은 △일반

쓰레기와 분리, 납등 특수차폐 시설을 마련해 보관하고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전문업자가 수거해 △안전시설을 갖춘 처리장에서 △연구폐기처분하게 돼있다.

또 동위원소의 취급은 자격증소지자만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용기관이 방사성물질 찌꺼기와 오염된 장갑·슈·실험기구등 방사성폐기물을 별도 시설 없이 일반쓰레기처럼 처리하고 있는 형편이다.

S大 이공계실험실의 경우 폐기물을 일반휴지통에 담아 실험실복도에 두었다가 많아지면 지하실 일반창고에 옮겨 보관하고 있다.

H大 자연대는 고체폐기물의 경우 일정기간 일반용기에 보관, 방사선량이 약해지면 그냥 태워버리거나 땅에 묻고있어 대기·토양중으로 방사성물질을 유출시키고 있다. 특히 액체폐기물의 경우 일반하수구로 흘려보내거나 심지어 일부는 화장실 세척수로 재활용하고 있다. (11.8. 中央日報)

德裕山 茂朱리조트스키場 開場

12.22. 총38面중 17面, 쌍방울開發

국내 최대 레포츠타운개발(회지 44/45호 기보)로 인해 자연훼손과 폭우기에 무주구천동계곡의 흙탕물 소동으로 학계와 자연보호단체 및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받은바 있었던(회지 46호 기보) 국립공원 德裕山의 茂朱리조트스키場이 12월 22일 부부개장되리라 한다.

쌍방울개발(대표 南基龍)이 2천2백억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7월에 착공한 茂朱리조트시설가운데 문을 열게된 스키장은 전체건설예정인 스키장 38面중 17面으로 이중 국내 최장거리인 3천2백20m짜리 슬로프 1면을 비롯 1천5백m이상 3面등 총연장 17km가 우선개장되고 스키하우스 및 가족호텔용 콘도 4개동(422실)도 문을 연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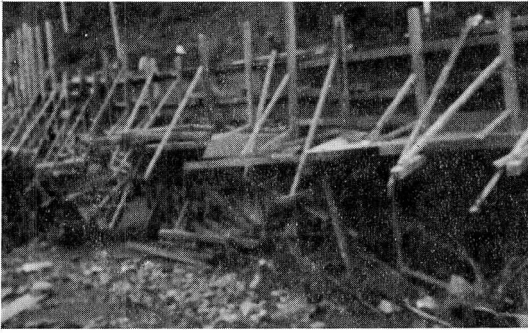
寫眞

暴雨로 인해 土砂에 밀려 淨化漕가 破損되어 초대형 리조트開發로 茂朱계곡이 흙탕물 溪谷으로 변했던 지난 여름의 現場스냅('90.7.20.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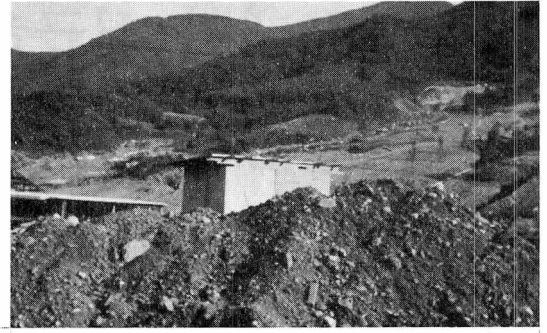
※ 쌍방울開發에서 앞으로 어떻게 덕유산의 自然回復과 保護에 힘을 기울일 것인지는 크게 注目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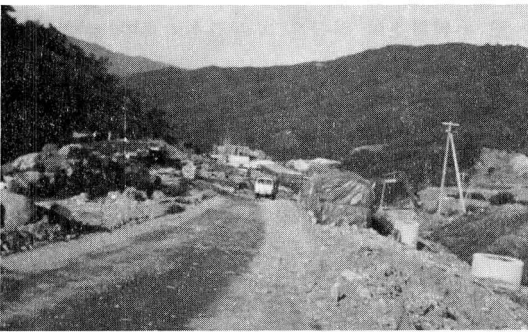
△ 흙탕물이 된 茂朱계곡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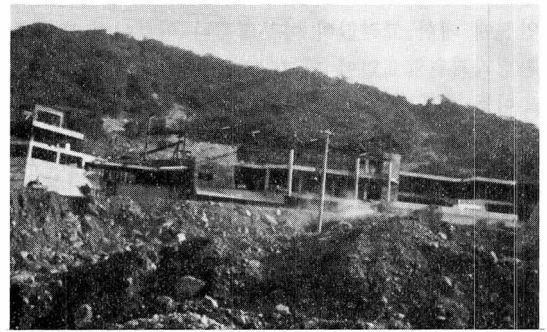
△ 流失된 濁水정화조 復元工事 장면



△ 流失된 土砂를 끌어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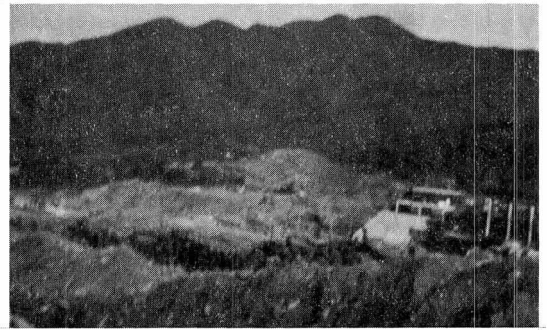
△ 進入路 工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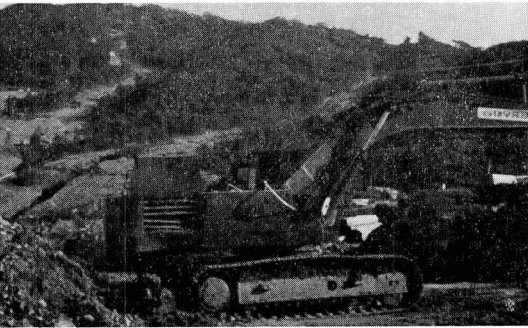
△ 광활한 山中턱에 건설중인 리조트시설의 一部



△ 시설물건설을 위해 계단식으로 파헤치고 있다.



△ 환경오염문제로 떠들석해도 시설물건설은 진행되고 있다.



△ 폭우로 인해 이미 개설한 山道가 유실·파손되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 冬季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건설되어 12월22일 일부가 개장된 南道 유일의 茂朱리조트의 스키슬로프(每經)